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7. 19	07. 26	08. 02
대 표 기 도	정환영 형제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성 경 봉 독	정환영 형제	이상호 목사	정해욱 형제

교회소식

7월의 축복 인사 : 일어나서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금요 기도회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음대 강의실에 모입니다.
4. 방학과 휴가 중에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5. 친교시간 - 예배 후 친교실에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감사헌금	
목적헌금	
합계(Euro)	
온라인헌금 추가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0)”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266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이예준 형제
성경봉독 Predigttext	나 2 : 1 - 7(구p1299) (Nahum 2:1~9)	이예준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무너진 성벽, 열려있는 십자가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를 위해
2.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청년들의 가치관 확립을 위해(진로, 결혼)
3.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황희순 집사님)
4.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무너진 성벽, 열려있는 십자가

사람은 안전과 평안을 얻기 위해 돈, 건강, 지위, 인간관계와 같은 자신만의 성벽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성벽은 결국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의 니느웨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역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I 인간의 성벽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진다는 은혜
니느웨의 견고한 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돈과 건강, 성공을 의지하지만 참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십자가만이 죄인을 살리는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II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백성들을 회복하시켜주시는 은혜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동시에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도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III 인간의 왕국은 무너지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은혜
강대국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며,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질 성벽을 붙잡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용서와 회복,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내가 가장 안전과 평안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2. 나의 실패와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지요?